

주간 2017. 06. 05. ~ 2017. 06. 11.

전남농업정보

139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배추 · 무 생산, 출하 및 가격전망
- 양배추 생산 및 가격전망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국 최초 전남산 블루베리 수출 길에 오른다
- 곡성 멜론 말레이시아 첫 수출 길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우박피해 입은 과수원 관리 철저 당부
- 사료용 벼, 밥쌀용 벼와 재배방법 달라요

정책동향

- 전남도, 가뭄 우심지 특별교부세 25억원 추가 지원
- 전남도, 차단방역 강화... AI 위기 『심각』

사업신청 및 홍보

- 안전 · 안심! GAP 우수농장을 찾아라!
-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 30일까지 연장



전남농업기술원

목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6~20도, 최고기온: 24~28도)보다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3~15m)보다 적겠음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배추·무 생산, 출하 및 가격전망
- ▶ 양배추 생산 및 가격전망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1

- ▶ 전국 최초 전남산 블루베리 수출 길에 오른다
- ▶ 곡성 멜론 말레이시아 첫 수출 길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3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5

- ▶ 우박피해 입은 과수원 관리 철저 당부
- ▶ 고랭지 재배 콩 『이소플라본』 함량 1.5배 더 높아요
- ▶ 사료용 벼, 밥쌀용 벼와 재배방법 달라요
- ▶ 보리·밀 수확 후 곰팡이 독소 주의하세요

- ▶ 사람 게놈보다 5배 많은 양과 유전자 35,505개 해독
- ▶ 국산 삼채의 가금류 면역 증진 효과 밝혀
- ▶ 양잠산물로 만드는 고품종과 즉석묵 제조기술 확립
- ▶ 몸 안에서 녹는 실크 수술용 실 개발
- ▶ 이른 더위, 축사 미리 점검하세요

6. 정책 동향 31

- ▶ 전남도, 가금 우심지 특별교부세 25억원 추가 지원
- ▶ 전남도, 차단방역 강화... AI 위기 『심각』
- ▶ 전남도, 올해 시설원에 현대화사업에 171억원
- ▶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70세까지 확대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6

- ▶ 담양군, 벼 무논점과 직파재배 확산해 쌀 가격 경쟁력 확보
- ▶ 고흥군, 벼 실증시험재배 포장으로 고품질 쌀 생산
- ▶ 보성군, 간식용 햇감자 수미 본격 수확
- ▶ 화순군, 화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10일 개장
- ▶ 장흥군, 작물별 가금 대책 매뉴얼 운영
- ▶ 영광군,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
- ▶ 진도군, 진도올금 명품화 위해 산업특구 지정 신청

8. 해외 농업정보 43

▶ 미얀마, 비료시장 전망

▶ 대만, 여름철 태풍 대비 한국산 배추 등 400여톤 채소 비축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6. 12.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 가격은 차익 실현으로 전일대비 하락하였음. 그러나
봄밀 수확량에 대한 우려로 밀 가격은 한 주간 3.8% 상승
하였음

· 옥수수 : 옥수수 선물 가격은 중서부 주요 생산지의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전일대비 상승
하였음

· 대두 : 대두 선물 가격은 기술적 매수세 유입 및 중서부 지역의
기후에 대한 우려로 전일대비 상승하였음. 옥수수 시장의
강세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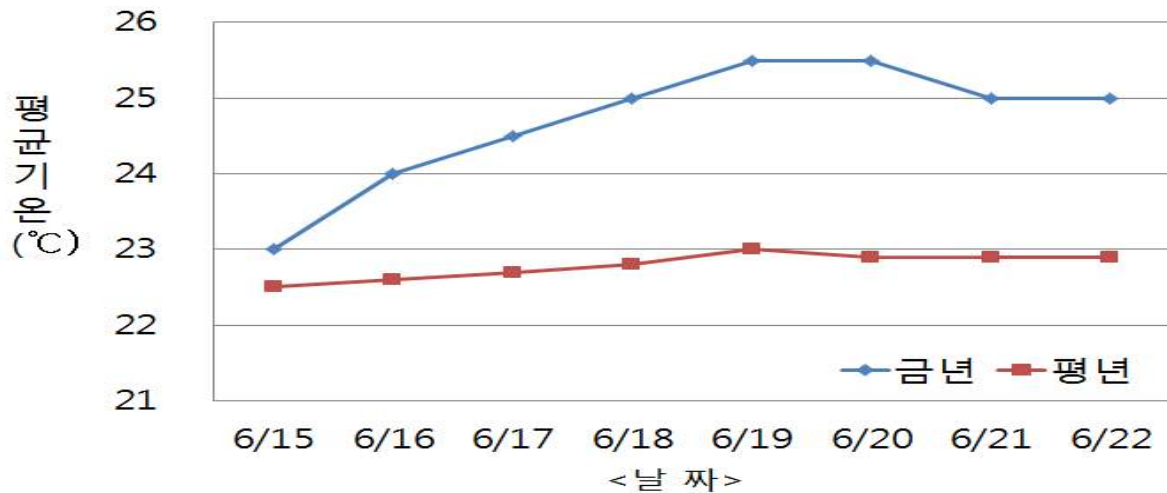
▶ 안전·안심! GAP 우수농장을 찾아라!

▶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 30일까지 연장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6월 15일 ~ 6월 22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24.7℃ (평년대비 1.9℃ 높음)
- 최고기온 : 31.1℃ (평년대비 3.3℃ 높음)
- 최저기온 : 18.3℃ (평년대비 0.5℃ 낮음)
- 강 수 량 : 5.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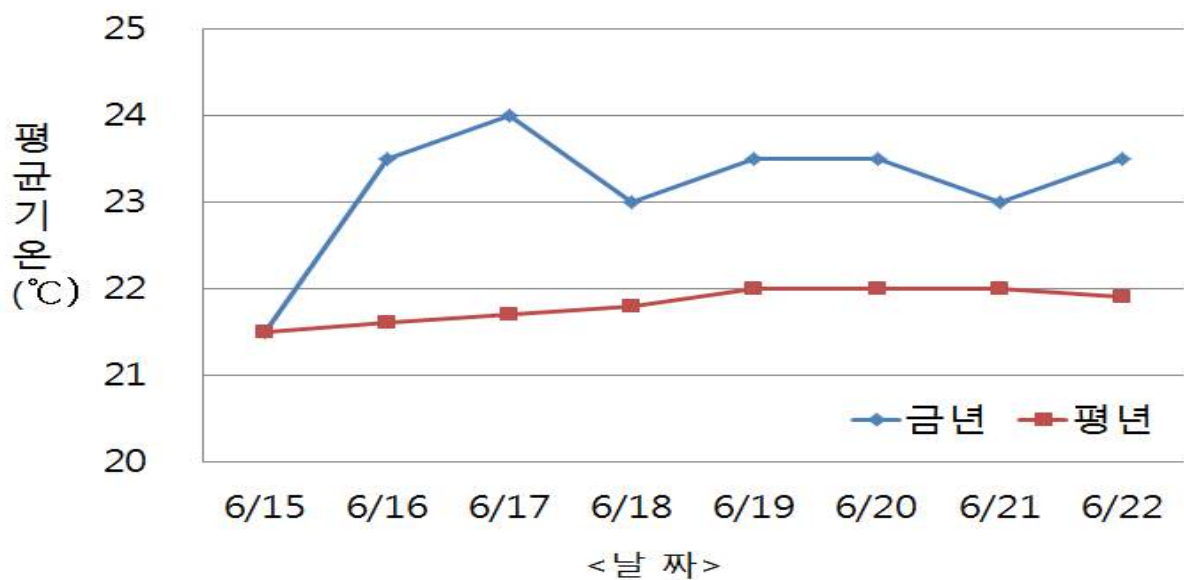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4.7	22.8	1.9	31.1	27.8	3.3	18.3	18.8	-0.5	5.8
6. 15.(목)	23.0	22.5	0.5	30.0	27.8	2.2	16.0	18.1	-2.1	3.7
6. 16.(금)	24.0	22.6	1.4	31.0	27.9	3.1	17.0	18.3	-1.3	4.0
6. 17.(토)	24.5	22.7	1.8	31.0	27.9	3.1	18.0	18.5	-0.5	4.5
6. 18.(일)	25.0	22.8	2.2	31.0	28.0	3.0	19.0	18.6	0.4	5.5
6. 19.(월)	25.5	23.0	2.5	32.0	28.0	4.0	19.0	18.9	0.1	5.8
6. 20.(화)	25.5	22.9	2.6	32.0	27.8	4.2	19.0	19.1	-0.1	6.3
6. 21.(수)	25.0	22.9	2.1	31.0	27.6	3.4	19.0	19.2	-0.2	7.1
6. 22.(목)	25.0	22.9	2.1	31.0	27.4	3.6	19.0	19.3	-0.3	9.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6월 15일~6월 22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23.2℃ (평년대비 2.0℃ 높음)
- 최고기온 : 27.8℃ (평년대비 1.7℃ 높음)
- 최저기온 : 18.6℃
- 강 수 량 : 5.1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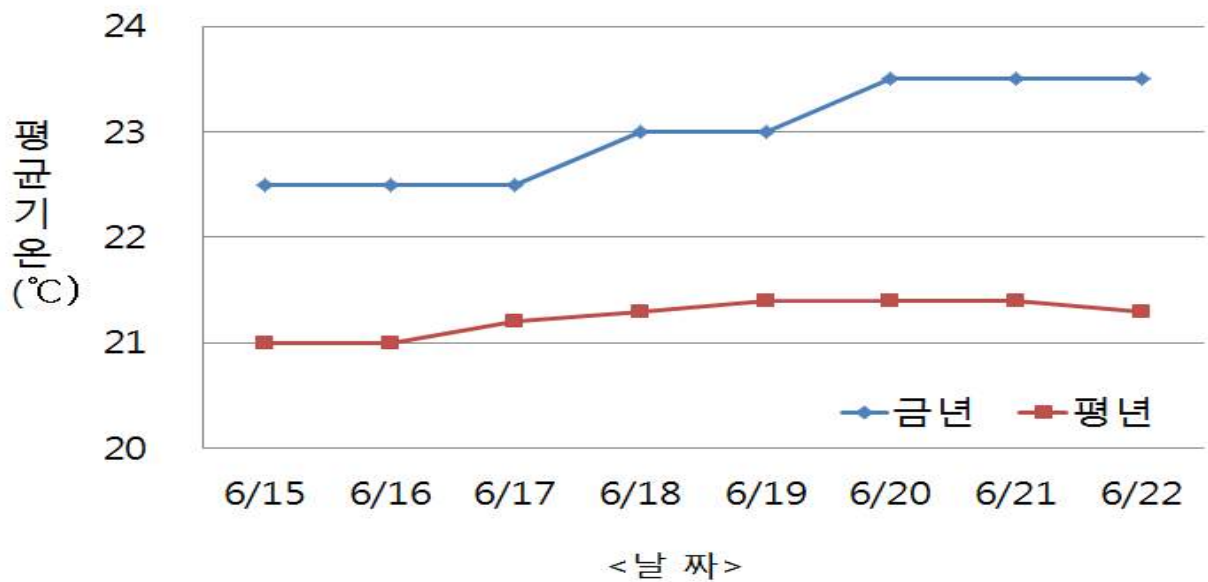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 균	23.2	21.8	2.0	27.8	26.1	1.7	18.6	18.6	0.0	5.1
6. 15.(목)	21.5	21.5	5.0	26.0	26.0	0.0	17.0	18.0	-1.0	3.3
6. 16.(금)	23.5	21.6	1.9	29.0	26.1	2.9	18.0	18.2	-0.2	3.9
6. 17.(토)	24.0	21.7	2.3	29.0	26.1	2.9	19.0	18.3	0.7	3.8
6. 18.(일)	23.0	21.8	1.2	27.0	26.3	0.7	19.0	18.5	0.5	4.5
6. 19.(월)	23.5	22.0	1.5	28.0	26.3	1.7	19.0	18.7	0.3	4.7
6. 20.(화)	23.5	22.0	1.5	28.0	26.1	1.9	19.0	18.9	0.1	5.1
6. 21.(수)	23.0	22.0	1.0	27.0	26.0	1.0	19.0	19.0	0.0	6.1
6. 22.(목)	23.5	21.9	1.6	28.0	25.9	2.1	19.0	19.1	-0.1	9.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6월 15일~6월 22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23.0℃ (평년대비 1.8℃ 높음)
- 최고기온 : 26.6℃ (평년대비 2.1℃ 높음)
- 최저기온 : 19.4℃ (평년대비 0.6℃ 높음)
- 강 수 량 : 6.9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3.0	21.3	1.8	26.6	24.5	2.1	19.4	18.8	0.6	6.9
6. 15.(목)	22.5	21.0	1.5	27.0	24.5	2.5	18.0	18.3	-0.3	5.6
6. 16.(금)	22.5	21.0	1.5	27.0	24.5	2.5	18.0	18.4	-0.4	6.1
6. 17.(토)	22.5	21.2	1.3	26.0	24.6	1.4	19.0	18.5	0.5	6.6
6. 18.(일)	23.0	21.3	1.7	26.0	24.7	1.3	20.0	18.6	1.4	6.8
6. 19.(월)	23.0	21.4	1.6	26.0	24.7	1.3	20.0	18.9	1.1	6.4
6. 20.(화)	23.5	21.4	2.1	27.0	24.5	2.5	20.0	19.0	1.0	6.4
6. 21.(수)	23.5	21.4	2.1	27.0	24.4	2.6	20.0	19.1	0.9	7.2
6. 22.(목)	23.5	21.3	2.2	27.0	24.2	2.8	20.0	19.2	0.8	10.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배추 생산, 출하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노지봄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많을 전망

○ 2017년 노지봄배추 추정 생산량 단수가 감소하나, 재배면적이 늘어 작년대비 11% 증가한 15만 6천~15만 7천톤으로 전망된다.

○ 노지봄배추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천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7년		1,928	8,085~8,137	155.9~156.9
2016년		1,630	8,656	141.1
평 년		1,967	8,033	158.0
증감률	전년대비	18.3	-6.6~-6.0	10.5~11.2
	평년대비	-2.0	0.6~1.3	-1.4~-0.7

□ 출하전망 : 6월 출하량 작년보다 증가

○ 노지봄배추 출하량은 작년보다 10% 많을 것으로 전망, 출하면적은 작년 대비 17% 증가하나, 단수는 고온 및 가뭄피해로 6% 감소할 전망이다.

○ 준고랭지1기작 배추 출하량은 작년보다 6% 많을 것으로 전망, 출하면적은 작년대비 9% 증가하나, 단수는 가뭄으로 3% 감소할 전망이다.

□ 가격전망 : 6월 가격 작년과 평년보다 낮을 전망

○ 6월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와 소비부진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은 10kg당 3,5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6월 가격은 하순에 봄배추 저장 수요가 크게 증가하거나, 가뭄 및 고온이 지속될 경우, 전망치보다 상승할 수 있다.

무 생산, 출하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봄무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 2017년 시설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14% 많은 1만 3천톤으로 전망된다.
- 시설봄무 출하는 조기파종, 월동무 품위저하 등으로 평년(5월 중순)보다 앞당겨졌다.
- 노지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4% 내외 많은 8만 4천~9만톤으로 전망된다.
- 노지봄무는 파종 및 생육기(3~5월) 강수량이 평년(69mm)보다 적어 파종이 지연되거나 생육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하전망 : 6월 출하량 작년과 비슷, 7월은 증가

- 6월 봄무 출하량은 증가하나, 저장 월동무는 출하가 조기(5월 하순)에 대부분 마무리 되면서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격전망 : 6월 가격 전월대비 하락 전망

- 6월 가격은 작년과 비슷하나, 전월보다 하락한 18kg당 9,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7월 가격은 터널봄무와 준고랭지1기작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 6~7월 가격은 가뭄 지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양배추 생산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봄양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전망

○ 2017년 봄양배추 생산량은 작년대비 16% 증가한 7만 8천톤으로 전망된다.

○ 봄양배추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천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7년		1,661	4,667	77.5
2016년		1,463	4,565	66.7
평 년		1,387	4,720	65.4
증감률	전년대비	13.5	2.2	16.0
	평년대비	19.7	-1.1	18.4

□ 가격전망 : 6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

○ 6월 가격은 봄양배추 출하량이 5% 많아 작년보다 낮은 8kg당 3,5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그러나 전남지역(진도·해남)의 생육기 높은 일교차로 추대가 발생하여 재배면적의 70% 이상이 출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남 봄양배추 추대 피해면적

(단위 : ha)

구 분	진도	해남	전체
전체면적	168	147	315
피해면적	161	72	233

○ 7월 가격은 노지봄 및 준고랭지 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국 최초 전남산 블루베리 수출 길에 오른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국 최초로 2017년 전남산 블루베리가 말레이시아 수출 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 수출물량은 110kg으로 말레이시아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상류층을 대상으로 판촉 할 계획이다.
 - 이번 블루베리 해외 첫 수출은 노지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를 해외로 보낼 수 있어 국내시장 가격안정화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 국내 블루베리 시장은 3월말에서 5월말까지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는 가격이 안정화되다가, 6월 초순에 노지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의 홍수출하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블루베리를 1시군 1특화작목으로 선정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생산단지 기반조성, 품종갱신,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여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육성할 계획이다.
-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곡성 멜론 말레이시아 첫 수출 길

- 전남농기원, 수출 규격품 생산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6월 7일 국내 꽃 전문 수출 업체인 (주)제이제이에프와 곡성멜론주식회사가 수출 협약을 통해 곡성 멜론을 말레이시아로 본격적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 전남농기원은 2016년부터 도내 신선농산물 수출을 위해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출규격품을 생산하는데 기술을 지원하였으며, 도내에서 화훼를 수출하고 있는 수출 전문업체인 (주)제이제이에프에 신선농산물 시장개척을 위해 동남아 국가에 수출시장 개척을 제안하여 이번에 멜론을 말레이시아에 첫 수출하게 되었다.
- 전남의 재배면적은 549ha로 전국의 39%를 점유하고 있으며, 곡성 멜론 주식회사 작목반에는 208농가가 90ha를 재배하여 5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전국 농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은 물론 일본·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곡성 멜론은 당도 등 품질이 우수하여 유통업체, 해외 바이어,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6. 12.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6/12)	1주일전 (06/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1,800	31,800	31,800	36,200	41,467	↓ 12.2	↓ 23.3
	콩(백태)	35kg	170,600	170,600	172,000	150,000	162,800	↑ 13.7	↑ 4.8
	고구마(밤)	10kg	27,000	26,600	27,400	30,300	29,313	↓ 10.9	↓ 7.9
	감자(수미)	20kg	35,000	36,600	49,640	25,800	26,893	↑ 35.7	↑ 30.1
채 소 류	배추(봄)	1kg	470	430	390	588	513	↓ 20.1	↓ 8.4
	양배추	10kg	4,000	3,860	4,340	5,900	6,193	↓ 32.2	↓ 35.4
	오이(다다기계통)	10kg	16,000	11,667	11,133	12,750	15,189	↑ 25.5	↑ 5.3
	애호박	8kg	14,400	10,000	9,880	12,050	12,137	↑ 19.5	↑ 18.6
	건고추(화건)	60kg	546,000	546,000	555,200	710,000	778,667	↓ 23.1	↓ 29.9
	풋고추	10kg	37,800	49,400	51,520	32,800	36,607	↑ 15.2	↑ 3.3
	마늘(깐마늘)	20kg	131,400	133,200	135,640	175,500	109,267	↓ 25.1	↑ 20.3
	양파	20kg	22,200	20,200	22,760	15,100	16,007	↑ 47.0	↑ 38.7
	당근	20kg	33,200	33,600	35,320	31,400	32,013	↑ 5.7	↑ 3.7
	대파	1kg	1,410	1,500	1,680	1,953	1,826	↓ 27.8	↓ 22.8
	파프리카	5kg	16,000	20,000	16,840	18,250	19,510	↓ 12.3	↓ 18.0
	참외	10kg	27,000	35,800	49,400	34,950	34,050	↓ 22.7	↓ 20.7
	토마토	10kg	16,800	18,600	19,280	13,550	16,767	↑ 24.0	↑ 0.2
	방울토마토	5kg	16,800	18,000	20,000	12,500	13,250	↑ 34.4	↑ 26.8
	수박	1개	15,400	15,200	18,760	13,900	13,767	↑ 10.8	↑ 11.9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8,800	38,800	38,040	37,200	50,933	↑ 4.3	↓ 23.8
	배(신고)	15kg	48,200	45,800	44,200	44,600	50,160	↑ 8.1	↓ 3.9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6/12)	1주일전 (06/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1,000	521,000	519,000	529,250	551,667	↓ 1.6	↓ 5.6
	느타리버섯	2kg	12,400	11,800	11,360	13,200	12,680	↓ 6.1	↓ 2.2
	새송이버섯	2kg	7,800	7,600	7,080	7,350	7,730	↑ 6.1	↑ 0.9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736	7,667	7,637	7,610	6,482	↑ 1.7	↑ 19.3
	돼지고기(삼겹살)	100g	2,258	2,087	2,196	2,228	2,074	↑ 1.3	↑ 8.9
	닭고기	1kg	5,852	5,905	5,850	5,125	5,492	↑ 14.2	↑ 6.6
	계란(특란)	30개	7,957	7,931	7,943	4,928	5,538	↑ 61.5	↑ 43.7
	우유	1리터	2,527	2,527	2,530	2,549	2,478	↓ 0.9	↑ 2.0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6. 12.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274 천원	5,338 천원	5,972 천원	↓ 1.2	↓ 11.7
	거세	6,614 "	6,658 "	7,406 "	↓ 0.7	↓ 10.7
송아지 (6~7월)	암	3,039 "	3,015 "	3,255 "	↑ 0.8	↓ 6.6
	수	3,839 "	3,813 "	4,018 "	↑ 0.7	↓ 4.5
육우(600Kg)		2,868 "	2,926 "	3,410 "	↓ 2.0	↓ 15.9
젖소수송아지(7일령)		192 "	189 "	332 "	↑ 1.6	↓ 42.2
돼지(110kg)		474 "	456 "	461 "	↑ 3.9	↑ 2.8
육계(원/kg)		2,056 원	2,459 원	1,535 원	↓ 16.4	↑ 33.9
계란(원/특란10개)		2,113 "	2,122 "	984 "	↓ 0.4	↑ 114.7
오리(원/kg)		2,667 "	2,667 "	1,667 "	- 0.0	↑ 60

※ 한우(거세우) : 6,930천원/마리(△880)

· '15년 생산비(5,97615년 송아지 가격(2,885)+현재 수 송아지 가격(3,839))

- 육우 3,726천원, 돼지 267천원, 육계 1,244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0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우박피해 입은 과수원 관리 철저 당부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5월 31일 곡성·순천 등 전남 내륙지방에 국지적으로 내린 우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과수원 관리 요령을 발표했다.
- 이번 우박으로 피해가 심한 사과는 피해 과실을 제거하되 나무 세력 안정을 고려해서 일정한 과실을 남겨두어야 하며, 살균제를 충분히 살포해서 상처 부위에 2차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박 피해는 주로 꽃눈, 가지, 엽, 열매에 기계적 손상을 입혀 착과율 및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며 2차적으로 병해를 유발한다.
- 잎 손상이 심한 경우는 잎숙음 효과로 인해 새가지가 발생하며 이는 손상된 엽 면적을 확보해서 수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육 현상이므로 새로 나온 가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
- 우박에 의해 나무껍질이 손상된 복숭아 가지는 병 감염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강하게 절단해서 새가지 발생을 유도해야 한다.
- 다만, 강한 전정을 할 경우 줄기가 햇빛에 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햇빛 차광용으로 일부 가지를 남겨 두어야 하고, 절단부위 및 상처부위에는 보호제를 발라서 수분 증발을 억제해야 한다.
- 열매숙기는 피해열매 중심으로 숙아주어야 하며 잎의 손상 정도에 따라 열매 1개당 △사과 30~50매 △배 30매 내외 △복숭아 20~25매를 남겨 생육촉진을 위해 요소 엽면시비를 해야 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고랭지 재배 콩 『이소플라본』 함량 1.5배 더 높아요

- 고랭지 적응 콩 40품종 선발... 대풍 콩 추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에서는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 시, 기능성 성분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게 나타난 콩 품종을 소개했다.
- 해발 600m 이상인 고랭지에서 재배된 콩은 이소플라본 함량이 평nan지에 비해 높게 나타나 고랭지에서 재배한 콩의 기능성 성분과 함께 건강과 관련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 이소플라본은 콩과작물에만 존재하는 기능성 물질로 여성 유방암 감소나 폐경기증상 완화, 골다공증 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콩의 이소플라본 함량은 품종, 재배지역, 기후와 같은 재배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평nan지에서 심은 콩에는 평균 약 2,709 μ g/g의 이소플라본이 함유돼 있으나, 고랭지에서 재배된 콩의 이소플라본의 함량은 조사결과 약 4,000 μ g/g 이상으로 일반 콩에 비해 약 1.5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고랭지에 심긴 콩의 경우 성숙기에 들어서면 저온 및 큰 일교차로 인해 이소플라본 함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ennupati P, Seguin P, Liu W. 2011. 대두 이소플라본과 토코페롤 농도에 대한 발달 단계별 고온 스트레스의 영향,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59: 13081-13088)

- 농촌진흥청은 고랭지 지역 적응성 콩 40품종을 선발했으며, 이 중 『대풍, 팔달콩, 일미콩, 신팔달 2호』 4품종은 이소플라본 함량이 전체 콩의 0.4% 이상($4,000\mu\text{g/g}$) 함유돼 일반 콩($2,709\mu\text{g/g}$)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특히 대풍은 2016년 고랭지 지역 적응성 평가 결과, 수확량이 평지에 심은 것에 비해 8% 증가했다.
- 고랭지 지역 내 콩 재배는 고랭지 채소의 이어짓기로 토양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고랭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이소플라본 함량 및 수량성이 높은 대풍은 종자원 강원지원(☎ 033-433-2517)에 문의해 구입할 수 있다.
- 대풍은 구입이 가능하며, 그 외 4품종은 현재 구입하기 어렵다. 앞으로 농가 수요 요청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보급종을 생산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사료용 벼, 밥쌀용 벼와 재배방법 달라요

- 최대 사료수량 얻으려면 비료양 밥쌀용 벼의 2배, 촘촘히 심어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국내 쌀 수급안정 및 국산 풀사료 생산을 위해 밥쌀용 벼와는 다른 사료용 벼 재배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7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에서는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35천ha로 설정한 바 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협과 전국 9개소에 시범단지를 조성해 사료용 벼 재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 밥쌀용 벼 대신 사료용 벼를 재배하면 10월 전 수확이 가능해 동계 사료 작물과 연계한 다양한 작부체계 적용이 가능하다.
- 또한 연중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밥쌀용 벼 재배 시 탈곡·건조·도정 등 수확 후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비용 절감 측면에도 좋다.
- 논에서 벼 대체 사료작물 생산 시, 다른 사료작물에 비해 물 빠짐이 안 되는 논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며, 수분함량 조절이 잘돼 균일한 품질의 풀사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2007년 『녹양』을 시작으로 『목우, 목양, 녹우, 영우, 조농, 청우』 7품종을 사료 전용 품종으로 개발했다.
- 사료용 벼의 최대 사료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밥쌀용 벼의 2배 수준(질소 18kg/10a)의 비료를 줘야 하며, 기계이앙 시 밥쌀용 벼보다 촘촘하게 심는 밀식재배가 필요하다.

- 비료를 줄 때, 질소는 밑거름-새끼칠거름-이삭거름을 5:2:3 비율로 주고, 칼리는 밑거름-이삭거름을 7:3 비율로 나누어 주면 된다.
- 다비재배를 할 경우, 최고 총체건물수량은 20.6톤/ha(청우)~14.8톤/ha(조농)까지 가능하다.
- 각 품종의 최대수량 확보를 위해 재식밀도는 최소한 3.3m² 당 70~80주, 포기당 3~5본은 돼야 한다.
- 사료용 벼 재배 시 주의점은 제초제 처리 시 메소트리온, 벤조비사이클론 성분에 약한 품종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품종마다 병해충에 약한 것이 있으므로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
- 『목우』는 벤조비사이클론 성분에 처리온도, 처리량에 관계없이 100% 백화증상이 나타나며 『녹양, 목양, 녹우』는 약하게 나타난다.
- 『목양, 녹우』는 흰잎마름병에 약하므로 상습발생지인 해안지에 재배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보리·밀 수확 후 곰팡이 독소 주의하세요

- 곰팡이 독소 오염 예방을 위한 수확 후 관리 요령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보리·밀 등 맥류 수확이 시작됨에 따라 곰팡이 독소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확 후 관리방법을 제시했다.
- 맥류에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병은 맥류의 이삭 패는 시기부터 성숙할 때까지 비가 오면 발생가능성이 높다. 올해 이 시기에 비가 잦거나 습한 날씨가 지속되었던 지역에서는 붉은곰팡이병에 주의하여야 한다.
- 붉은곰팡이병에 감염된 맥류는 니발레놀, 디옥시니발레놀 등 곰팡이 독소에 오염되기 쉽고 사람과 가축에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다.
- 곰팡이독소는 한번 생성되면 제거가 어려우며, 재배 중 오염된 붉은곰팡이는 수확 후에도 곡물에 남아 곰팡이독소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곰팡이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수확 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독소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곰팡이독소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리, 밀을 맑고 건조한 날 수확하여 즉시 건조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 보리·밀의 수확 시 이삭이 젖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확기에 습도가 높거나 비가 계속내릴 경우 수확기를 조금 늦추는 것이 안전하다.

- 수확 후에는 쌀보리·겉보리 이삭의 수분함량이 14% 이하가 되도록 건조하여야하며, 맥주보리는 수분함량 13%, 밀은 12% 이하로 건조하는 것이 좋다.
- 저장 시 비닐에 담아 밀봉한 후 톤백에 담아 상온에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온창고는 온도와 습도변화가 크고 특히 7, 8월에는 내부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생존하기 유리하다.
- 또한 저장 중 화랑곡나방, 바구미 등 해충이 번식할 수 있으며, 해충은 곡물의 품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면서 곰팡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곰팡이 독소의 오염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따라서 곰팡이 독소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 변화가 적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장기 저장 시 15℃ 이하, 습도 65% 이하에서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보리 붉은곰팡이병

▲ 맥주 저장(상온 창고)

▲ 맥류 저장 중 발생한 곰팡이

■ 사람 게놈보다 5배 많은 양파 유전자 35,505개 해독

- 종자산업 원천기반 구축... 지적·산업 재산권 창출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거대(巨大)게놈 작물인 양파의 유전자 35,505개를 해독했다고 밝혔다.
- 양파의 게놈크기는 16Gb(1백6십억쌍 염기)로 3Gb인 사람보다 5.3배 큰 거대게놈을 가지고 있다.
- * 게놈 : 낱알의 생물체 또는 1개의 세포가 지닌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의 총량.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경우 반수(n)의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총량
-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엄지레드(자색양파)』와 『신선황(황색양파)』에서 35,505개의 유전자를 찾아냈고, 이를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에 정보자료로 구축했다.
- 이번에 발굴한 35,505개의 유전자를 양파 조직별로 특이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약 15.9%인 5,678개의 유전자 중 887개는 뿌리에서, 2,808개는 줄기·잎, 1,321개는 꽃, 662개는 구에서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했다.
- 또한 약 9%에 해당하는 3,223개의 유전자는 국제유전자목록 정보자료(미국 NCBI)에도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유전자로 확인됐다.
- 이번에 구축한 유전자는 첨단염기서열해독장비와 자체개발한 염기서열 분석방법으로 세계 최초로 작성됐다. 그 과정에서 유전자 종류, 구조, 기능 및 개수 등을 해독해 내는 표준절차를 구축했고, 그 절차와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Plant Biotechnology Reports에 2016년 12월에 게재했다.

- 이번에 확보한 35,505개의 유전자 정보는 국제유전자목록(NCBI)에서도 현재까지 양파 유전자로 판단되는 염기서열인 3만 3천개 (검색조건, EST&onion)를 능가해 국제적으로도 단일연구에서 가장 많은 자료다.
- 구축한 유전자 정보는 양파의 약리성 물질 생산, 병원균 방제, 신품종 육성 등 양파 연구 전반에 활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양파의 종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종자기업과도 협력해 활용할 계획이다.
- 앞으로 유전체 정보와 유전자 기능 분석까지 확대해 암 예방, 노화 억제, 고혈압 예방, 신진대사 촉진 등 다양한 유용유전자를 발굴하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의 대량 창출도 기대된다.
- 아울러 양파 유전체 해독으로 얻는 유용형질의 분자유종 마커개발 기술은 90%이상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양파 종자를 국내 육성 종자로 대체할 수 있는 종묘산업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본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국산 삼채의 가금류 면역 증진 효과 밝혀

- 미국 농무성과 공동으로 삼채의 면역조절 효과 입증 -

- 국내에서 생산된 삼채가 가금류의 면역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기능성을 이용한 사료 개발과 양계산업 활성이 기대되고 있다.
- 삼채는 모양과 맛이 어린 인삼을 닮아 蔘菜(삼든채), 단맛과 매운맛, 쓴맛 등 3가지 맛이 복합돼 있어 三菜(삼채), 그리고 부추보다 뿌리가 무성해 뿌리부추로 불리는 채소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2014년부터 삼채의 기능성을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성과 함께 가금류에서 삼채의 면역조절 효과를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삼채의 기능성을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어 치료가 필요한 질환(당뇨병·비만 및 골다공증)에 대해 평가했다. 그리고 미국 농무성은 닭 면역연구 권위자인 릴레호이(한현순) 박사와 공동으로 삼채의 기능성 평가 연구를 수행했다
- 연구결과, 국산 삼채가 닭의 면역을 높여 장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닭 생산 효과가 우수함을 밝혀냈다.
-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으며, 닭의 주요 질환인 콕시듐에 대한 면역과 고온 및 염증과 같은 스트레스 환경에서 삼채의 급여효과를 평가했다.
- 삼채를 육계용 닭에게 3주간 먹이면서 콕시듐증(설사, 생산량 감소 및 폐사)을 유발했을 때 삼채를 먹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생산성(증체량)이 9.7%, 식이효율이 14.2% 늘었다. 또한 장 질환이 14.3% 줄었으며, 혈중 항체를 16.1% 많이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닭에게 삼채를 1주간 급여하고 염증 유발성 스트레스를 줬을 때, 삼채를 먹인 군에서 생산성이 59.8%, 장 건강 지표(MUC2)가 114.5% 늘었고, 혈액과 장의 염증 관련지표(α -1-AGP, IL-1 β)가 약 20% 줄어 닭의 면역 및 장 건강 상태를 유의적인 수준에서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삼채의 면역 조절 효과에 대해 이미 국내·외에 특허출원(10-2015-0079081, PCT/KR2016/009310)했으며, 관련 내용을 Research in Veterinary Science, Journal of Poultry Science 등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했다.
- 연구팀은 이미 삼채에서 『혈당·체지방 감소와 뼈 건강 향상 효과』를 알아낸 바 있으며, 이번에는 삼채의 면역조절 효과를 증명으로써 삼채의 복합 기능성을 밝히는 데 성공했다.
- 가금류에서 삼채의 면역 조절 효과에 대한 기술은 교촌그룹의 BHN 바이오에 이전해 6월에 현장 적용시험을 할 예정이다. 업체에 따르면 삼채 사료를 15톤 생산(100억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 특히, 양계 산업에서 가금류용 사료 및 첨가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항생제 대체 소재에 관심을 갖는 국외에 진출할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양잠산물로 만드는 고품질과 즉석묵 제조기술 확립

- 오디와 뽕잎을 활용한 『직접 만들기』 체험 꾸러미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양잠산물인 오디와 뽕잎을 활용해 고품질과 즉석묵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 오디 고품질은 기존의 발라먹는 형태와 달리 반고체 형태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뽕잎 즉석묵은 가열과정 없이 뽕잎 가루를 묵가루와 함께 물만 부어 섞어주면 완성된다.
- 오디 고품질과 뽕잎 즉석묵은 특허 출원된 기술로, 양잠농가가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험용과,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DIY(do-it-yourself)용으로 제작해 보급했다.
- 체험 꾸러미는 참뽕(오디)으로 유명한 부안 유유마을에서 해마다 6월 첫째주 금~일요일에 열리는 『참뽕축제』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마을에 예약을 하면 오디따기 체험과 연계도 가능하다.
- 앞서 유유마을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기술교육을 하면서 현장 실증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체험객의 『교육효과, 재미, 맛』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체험판매 수익도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오디고품질·뽕잎즉석묵 체험세트(앞,뒤)



▲ 체험세트 구성품

■ 『몸 안에서 녹는 실크 수술용 실』 개발

- 항균활성과 생체적합성 뛰어나 상처 빨리 낫는 효과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강릉원주대와 『몸 안에서 녹는 실크 소재 수술용 실』 흡수성 실크 봉합사를 개발하고 실크소재 실이 몸속에서 녹는 작용 원리를 알아내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실크 수술용 실(봉합사)은 식품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4-hexylresorcinol(4-HR)을 실크에 결합해 만든 것이다.
- 실크 수술용 실은 천연 생물 소재로 항균활성이 있어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처 주변 염증반응을 억제해 상처가 빨리 낫는 효과도 있다.
- 실크는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천연고분자로 오랫동안 수술용 실로 사용됐다. 하지만 실크 봉합사는 녹지 않아 꿰맨 상처가 나으면 수술용 실을 제거해야만 해서 몸 밖 상처를 봉합하는 용도로만 사용됐다.
- 동물실험으로 이식 11주 후 흡수성 실크 봉합사와 현재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판 흡수성 봉합사를 비교했을 때, 흡수성 실크 봉합사는 59.5%, 시판 흡수성 봉합사는 56.4%로 비슷한 흡수성을 보였다. 이러한 흡수성 실크 봉합사는 이식 후 몸속에서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돼 인체에 무해한 것이 장점이다.

- 또한 흡수성 실크 봉합사는 인장 강도와 봉합 강도 등 물리적인 성질도 시판되고 있는 흡수성 봉합사와 비슷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 녹는 실크 봉합사는 기존 실크 봉합사에 간단한 가공만으로 합성고분자 소재보다 항균활성과 생체적합성이 우수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크릴 등 기존 흡수성(녹는) 봉합사는 합성고분자 소재로 일반 실크 봉합사보다 가격이 4배정도 높다.
- 이번에 개발한 흡수성 실크 봉합사는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실크의 생분해 기작을 Nature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에 2월 게재했으며, 산업체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앞서 누에고치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고막용 실크패치와 치과용 실크 차폐막도 개발해낸 바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이른 더위, 축사 미리 점검하세요

- 차광막 · 환기팬 함께 활용...시원한 물(10~15℃) 충분히 공급 -
- 농촌진흥청(정황근 청장)은 낮 기온이 30℃를 넘는 등 이른 더위로 축사 관리요령을 소개하고 꼼꼼한 점검을 당부했다.
- 가축은 더위 스트레스를 받으면 물을 많이 마시고 사료는 적게 먹는데 이에 따라 체중이 늘지 않고 번식 장애가 나타난다. 심한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 가축이 받는 더위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환기팬과 송풍팬을 이용해 축사 내 공기흐름을 빠르게 해주는 것이다.
- 개방형 축사의 경우 출입문이나 윈치커튼을 열어준다. 우사는 50㎡당 1대 이상의 송풍팬을 바닥으로부터 3~4m 높이에 45° 방향으로 설치한다. 풍속은 1초당 1m 이상으로 조절한다.
- 가축이 머무는 운동장과 축사는 차광막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거나 송풍팬을 함께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 젖소의 경우 대조구에 비해 우유 생산량이 15% 증가했다.
- 강제 환기로 온도를 조절하는 밀폐된 축사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입기와 배기팬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가축의 체감온도를 낮추려면 풍속을 초속 2~3m 정도로 조절한다.
- 환기시설 뿐 아니라 물을 이용해 가축 몸 표면의 온도를 낮춰 주거나 축사내부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것도 더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 이때, 내부 습도가 오르고 가축분뇨 처리량이 늘 수 있으므로 축사바닥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을 정도로 하고 송풍팬과 환기팬을 함께 사용한다.
- 또한, 가축이 물을 마시는 음수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찬물을 충분히 공급해 스트레스를 낮추고 사료섭취량이 줄지 않도록 유지한다.
-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이준엽 농업연구사는 “가축의 종류와 축사 형태에 맞는 적절한 고온 저감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 피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자”라고 강조했다.
- 더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 → 주요 발간도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고온기 가축관리 핵심기술』에서 축종별로 확인할 수 있다.
- 가축이 받는 열스트레스는 『한우리 누리집(hanwoori.nias.go.kr)』을 통해 제공하는 가축사육기상정보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 동향

◆ 전라남도, 가뭄 우심지 특별교부세 25억원 추가 지원

- 용수시설 확보로 피해 최소화 총력 -

- 전라남도는 6월 6~7일까지 이틀간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가뭄 우심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 특별교부세 25억원을 확보해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 올 들어 전남지역 강우량은 6월 현재까지 182mm로 전년(556mm)의 33%에 불과한 실정으로 신안·무안 등 10개 군 136지구 4천여ha에서 물이 부족해 모내기가 지연되고 있다.
- 모내기한 논 일부에서도 물마름과 시듦, 고사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6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가 어렵거나 고사하는 등 2천여ha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이번 특별교부세 25억원은 신안·무안 등 가뭄피해가 심한 우심지역 위주로 배분하며, 관정 개발, 하상 굴착, 간이양수장 등 긴급 용수 개발 사업비로 쓰여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라남도는 7일까지 예비비 100억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 25억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15억 8천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원, 특별교부세 25억원, 총 168억 8천만원을 시군에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차단방역 강화... AI 위기 『심각』

- 모든 시군에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운영, 사육농가 집중 소독 -
- 전라남도가 6일부터 AI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담양·곡성·구례·영광·장성 등 전북도와 인접한 5개 군에 운영하던 이동통제초소를 확대해 모든 시군에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 또한 6월 5일부터 전남지역 전통시장 38개소와 가든형식당 118개소에 대해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전통시장과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87개 공동방제단을 동원,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이동하는 모든 가금류는 사전에 검사해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토록 조치했으며,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농장 매일 소독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 개별농가에 대한 책임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가금류 종사자 및 관련 차량의 일제 소독을 위해 6월 7일 0시부터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가금 거래금지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해 중앙정부·도·시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현재까지 전북 군산 AI 발생농장에서 전남으로 유입된 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철저한 초동방역이 중요하다”며 “사육하는 닭과 오리에 대해 매일 임상관찰을 해 의심축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 (1588-4060)하고 외부인이 농장을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올해 시설원에 현대화사업에 171억원

-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 생산비 절감 사업에 집중 -

- 전라남도는 시설원예농가의 실질적 농업소득 증대와 안정적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시설원에 현대화사업에 17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온실에서 토마토·파프리카·딸기·장미 등을 생산하는 농업인 가운데 농협APC 등과 공동출하 약정서를 체결한 농업인에게 관수·관비 시설과 온실 환경관리 시설을 지원해 원예작물의 품질과 농업인의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 주요 지원 시설은 양액재배시설, 점적관수, 순환팬, 자동개폐기, 무인 방제기 등이다.
- 전라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고품질 시설원예작물을 생산하고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일본과 동남아 등 수출 기반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 사업 추진으로 시설원예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이 수출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남지역 시설원예 재배 면적은 5천 278ha로 전국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토마토·딸기·멜론·오이·파프리카·장미 등을 재배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70세까지 확대

- 전남도, 경지면적 제한도 폐지... 1만 4천 682명 추가 지원 -
- 전라남도가 6월부터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지원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 미만까지 상향하고, 3ha 미만으로 제한한 경지 면적을 폐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 그동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여성 가운데 가구당 경지면적이 3ha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업·임업·어업 경영 가구원이 대상이었다.
- 하지만 이달부터는 더 많은 여성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연령을 만 70세 미만까지 상향하고, 경지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했다.
- 사업 지원을 바라는 여성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년 행복카드를 통해 1인당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0만원을 음식점,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도서 구입, 스포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올해 3월 말까지 접수해 1차로 선정된 여성농어업인은 시군 상황에 따라 빠르면 6월부터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 가칭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는 농어촌의 고령화로 여성 농어업인 비중이 늘고 농산물 판매·가공과 농업 경영관리자로서의 활동 분야도 늘고 있는 등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남성이나 도시지역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여가활동 기회가 적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 서은수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보다 많은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여성농어업인들이 신청하도록 시군 담당자, 농업인 단체 등의 적극적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다.
- 전남지역 여성농어업 인구는 전체 농어업인의 52%로 남성보다 1만 4천 403명이 많은 18만 8천 556명이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는 약 6만 6천 947여명이다.
- 전라남도는 이외에도 여성농업인의 양성평등 실현, 지역 역할 강화 애로사항 해결 및 의견 수렴 등의 소통창구로서 『여성농업인 지원단』을 2016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여성농업인센터,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 등 여성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담양군, 벼 무논점과 직파재배 확산해 쌀 가격 경쟁력 확보

- 담양군이 직파기계를 활용해 벼씨를 직접 뿌려 재배하는 무논 직파재배 기술 확산에 나섰다.
- 직파재배는 ha당 생산비가 677만원으로 기존 기계이앙법보다 생산비 면에서 10% 절감이 가능하고, 노동 시간 또한 23% 단축시킬 수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군 농업기술센터는 『벼 생산비정감 종합기술모델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창평면 소재 고관석 씨 농가 및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이번에 13ha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대부분의 논을 대상으로 무논 직파재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 출처 : 담양군



■ 고흥군, 벼 실증시험재배 포장으로 고품질 쌀 생산

- 병해충 조기에찰 및 벼 유전자원 증식포 설치 -

- 고흥군은 6월 7일 농업기술센터 내 벼 실증시험재배 포장에 우리 지역에 알맞은 벼 품종 선발을 위해 32개 품종을 모내기하였다.
- 벼 실증시험재배 포장은 병해충 예찰과 농가의 품종 비교 선택에 도움을 주고, 극조생종인 백일미 등 32개 품종을 6,750m²에 모내기한 후 우리 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품종을 찾아 벼 품종 선택의 기초자료 및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병해충 예찰답에는 방제구·무방제구를 구분해 설치하고 예찰기자재(도열병 포자채집기, 유아등, 공중포충망 등)를 설치하여 신속한 병해충 발생 예측을 통한 조사, 관측, 분석으로 병해충의 종합관리 및 적기방제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안전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한편, 고흥군에서는 고품질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역적용 품종을 선발 육성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쌀을 지속적으로 생산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간식용 햇감자 수미 본격 수확

- 득량만 해풍 품은 보성 황토감자 판매 -

- 득량만 청정해역의 싱그러운 해풍을 품고 자란 보성의 특산물 보성 황토감자 수확이 한창이다.
- 절기상 하지 때 먹는 감자라 하여 하지감자라 하는 수미감자가 하지를 10여일 앞두고 8일 득량만 내륙 득량면과 회천면일원에서 본격적인 수확 작업에 들어갔다.
- 수미 품종은 찌서먹는 간식용으로 식감이 포근포근 하여 건강 식품으로 최고로 손꼽힌다.
- 철분·칼슘·마그네슘·무기성분과 비타민 등을 골고루 함유하여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웰빙 기호식품이다.

* 출처 : 보성군



■ 화순군, 화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10일 개장

- 화순군 4억원 지원, 지역농산물 260여 품목 판매 -

- 화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로컬푸드 직매장)이 10일 정식 개장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 화순군에 따르면 군비 4억원 등 총 14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옆에 연면적 457㎡ 규모로 1층에 판매장이, 2층에 농가 레스토랑이 조성됐다.
- 190여 회원 농가에서 생산한 지역 농산물 260여 품목을 판매하며 직매장은 농가가 농산물의 생산에서 포장, 가격결정, 출하까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화순군은 그동안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해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비를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를 위해 출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소포장재 지원 등을 통한 로컬푸드 출하농가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해 왔다.
- 정식개장을 앞둔 화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군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화순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를 통한 물류비 절감 등으로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 등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화순군

장흥군, 작물별 가뭄 대책 매뉴얼 운영

- 장흥군은 작물별 가뭄 대책 매뉴얼을 수립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현장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 물 부족으로 인한 못자리 실패 등에 대비해서는 벼 보급종 등 우량종자 3.6톤을 확보했다.
- 매주 밭 토양 수분함량 및 간척지 염농도 조사 등을 통해 가뭄 상습 피해지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포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봄 가뭄에 따른 농작물 기술대책으로 벼농사의 경우 물 손실 방지를 위해 논두렁을 비닐 피복해야 한다.
- 직파 한계기 6월 10일 이후에는 기계이앙으로 전환하고, 벼농사 한계기인 7월 5일까지 이앙이 안 될 경우 대파작물을 파종해야한다.
- 밭작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이용 관수, 생육부진 포장에는 요소 0.2%액 엽면시비, 인산·칼리 비료 증시를 해야 한다.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산간 계곡답 및 간척지 일부 지역에 6월 말까지 가뭄이 이어질 경우 염도 상승으로 모내기 차질 등이 예상된다”며 “비가 올 때 반드시 물 가두기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장흥군



■ 영광군,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관내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2016년산 쌀값 하락과 수탈아 피해에 따른 『벼 경영안정 특별대책비』 14억원을 6월 8일 이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급단가는 ha당 248,700원이며, 지급대상자는 2016년 논벼 재배농가로서 4,982농가 5,613ha에 대하여 최소 0.1ha 이상 2ha 한도 내에서 농가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28여만원이며, 최고 50여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금번 『벼 경영안정 특별대책비』는 2016년산 쌀값 폭락과 수탈아 피해로 인해 농업인들의 벼농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해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영광군 농업발전기금에서 금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 농가가 보전 받는 소득은 쌀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을 포함하여 80kg당 17만 9,083원이었으며,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2016년 12월에 기 지급된 42억원을 포함 총 56억원이 지원되어 농가 1인당 평균 87여만원으로 최고 200여만원까지 지원되어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영광군



■ 진도군, 진도울금 명품화 위해 산업특구 지정 신청

- 울금타운 조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관광 활성화 -
- 전국 최대 울금 주산지인 진도군이 울금을 주제로 한 산업 특구 지정 추진에 나선다.
- 대상 지역은 진도읍을 중심으로 328,022㎡이며, 총 사업비 12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특화사업을 추진, 울금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진도울금 산업특구는 △울금산업 기반 혁신화 △울금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울금 브랜드 마케팅 강화 △울금 융·복합산업 활성화 등의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 군은 △저온저장·제조가공 등 울금시설 현대화 △울금 재배·수확 기계화 △울금 기업 육성 △울금 홍보관 구축 △울금 축제 개최 △울금타운 조성 △울금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특히 진도울금 산업특구 지정으로 진도울금의 생산·가공·유통 판매 활성화와 체험 관광을 연계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전국 생산량의 86%를 차지하는 진도울금은 591농가가 189ha에서 3,118톤을 생산, 연간 7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2015년 국내 최초로 지리적 표시 제95호 등록되어 우수성이 입증된바 있다.
- 이동진 진도군수는 “울금산업 특구로 지정되면 관계 법령의 적용이 완화된다”며 “체험 관광 등 6차산업화로 진도울금을 명품화로 시켜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출처 : 진도군

8. 해외 농업정보

◆ 미얀마, 비료시장 전망

- 미얀마 전체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이 전체 GDP의 34%를 차지하는 등 농업은 미얀마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임
- 미얀마 정부는 농업 현대화 및 농산물 품질 개선 등 농업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는 농업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농업 투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검토 중임
- 미얀마 정부는 농업 수출 증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특히 만달레이(Mandalay) 주는 대규모 관개 사업을 진행하여 농지확보 및 농산물 증산에 집중하고 있음. 미얀마 농업축산관 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는 외국 자본을 활용한 농업 인프라 개선을 진행하는 등 농산물 증산과 품질 제고에 집중하고 있음
- 미얀마는 비옥하고 넓은 토지, 열대성 기후에 따른 풍부한 강수량과 일조량 등 농업에 적합한 환경일 지님. 그러나 농업기술 부족, 다모작으로 인한 지력 소모 등으로 농사에 비료 사용이 필수적임
- 미얀마는 비료 사용에 대한 환경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어 친환경 유기비료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화학비료를 선호함. 또한 미얀마 소비자는 주로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기비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화학비료를 선택함. 현지 바이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 중 화학비료가 80% 이상을 차지함

- 2011년 기준, 화학비료 중 인산비료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여러 성분을 포함하는 복합비료(Compound Fertilizer)의 사용량이 급증하여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됨
- 미얀마 내에서는 3개 기업이 비료를 생산 중이며, 약 20개 업체가 해외브랜드 비료를 수입·유통하고 있음. 현지 생산업체의 비료 생산량이 많지 않아 전체 농업용 비료 중 해외 브랜드가 60%를 차지하는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임
- 현지에서 생산 중인 비료 기업은 Bio Supreme, Armo, Awba이며, 복합비료 50kg 1포대 기준 3만~3만 5,000차트(22~26달러)에 거래됨
- 수입산 비료 중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과 태국산 비료의 수요가 많음. 태국산 비료는 현지 비료와 비슷한 가격인 3만 5,000차트(26달러)에 거래되며, 중국산 비료는 그보다 낮은 2만 8,000~3만 차트(20~22달러)에 판매됨
- 2016년, 미얀마 화학비료 수입규모(HS코드 3105)는 약 6,083만달러로, 전년 동기 4,940만달러 대비 약 23% 증가하였음. 미얀마의 비료 수입 증가 요인은 미얀마 정부의 농업진흥정책 및 2015년 미얀마 전역에 발생한 홍수 피해 복수 사업인 것으로 분석됨
- 2017년 1월 기준, 베트남의 화학비료 수입 규모는 495만달러로, 전년 동기 334만달러 대비 100만달러 이상 증가하였음
- 2016년 기준, 한국의 대 미얀마 화학비료 수출량은 기준 약 100만 달러로, 다른 국가에 비해 수출 규모가 작은 편임
- 하지만 2010년 이후 매년 수출 규모가 늘어남. 특히, 2015년 수출량이 전년대비 10배, 2016년에 전년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산 비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대만, 여름철 태풍 대비 한국산 배추 등 400여톤 채소 비축

- 대만은 여름철 심한 태풍 및 장마로 인해 공급물량 급감하여 채소가가 폭등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금년에도 신선과채류 가격 안정을 위해 대만 농량서는 민간 물류업체와 연계, 과채류 구매비축 계획을 실시하였다.
- 대만 농량서는 월 NTD60만불(원화 2,400만원)을 농산물 냉장·냉동 전문물류센터에 지원하여 400여톤의 과채류를 사전 구매하여 비축하고 있다.
- 대만 장화지역의 북두냉동·냉장 물류센터는 최근 태풍 및 장마 대비용으로 한국산 배추 및 기타 감자·당근·무 등 저장성이 높은 채소류를 위주로 약 월 400여톤의 채소류를 비축하였고, 매일 약 30톤을 출고되고 있다고 한다. 주 공급처는 재래시장, 도시락 제조업체, 슈퍼마켓, 대형할인매장, 경매시장으로 유통되며 일부는 수출하고 있다.
- 대만은 매년 태풍 및 장마철을 대비하여 배추·양배추·감자·당근·무·양파 등은 가격 안정을 위해 저장성이 강한 채소류의 일정량이 비축되고 있다. 특히 배추는 한국산 배추를 저장 비축하여 특히 태풍 후 한국산 배추·양배추가 급히 출고되거나 대량 수입되기도 한다. 대만 비상용 채소류의 유통망, 비축방법, 재해 대처 등의 이해를 통한 한국산 채소류 수출확대의 기회를 모색하여야 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6. 12.(시카고 선물거래소)

□ 중서부 지역 기온 상승에 대한 우려로 옥수수·대두 선물 가격 상승

○ 밀 선물시장 상황(▼0.8%)

- 밀 선물 가격은 차익 실현으로 전일대비 하락하였음. 그러나 봄밀 수확량에 대한 우려로 밀 가격은 한 주간 3.8% 상승하였음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0.5%)

- 옥수수 선물 가격은 중서부 주요 생산지의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전일대비 상승하였음

○ 대두 선물시장 상황(▲0.4%)

- 대두 선물 가격은 기술적 매수세 유입 및 중서부 지역의 기후에 대한 우려로 전일대비 상승하였음. 옥수수 시장의 강세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안전·안심! GAP 우수농장을 찾아라!

- 제3회 GAP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9.21.), 대상 500만원 시상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GAP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하여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GAP인증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3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경진대회 개요

- 목적 : GAP 실천농가 성공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농업인 참여 계기 마련 및 소비자 관심 유도
- 일정
 - 우수사례 신청(6월중) : 농업인(단체)은 해당 시군에 신청
 - 지역별 심사 및 추천(7.10.) : 시도별 3건 내외 선발 및 추천
 - 서류·현장심사(7.11.~8.30.) : 외부 전문심사단(4인) 심사
 - 경진대회(9.21.) : 우수사례 10건 선정(세종컨벤션센터)
- 시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및 부상
 - 대상 1(500만원), 금상 2(각 300), 은상 3(각 200), 동상 4(각 150)
- 홍보 : GAP우수사례 기획보도, 농업인 현장 교육 및 농장투어 활용,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 30일까지 연장

- 가뭄으로 모내기 늦어져 가입 못한 농가 위해 -

- 전라남도는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벼 재해보험 가입 기한이 오는 30일로 연장됐다고 10일 밝혔다.
- 당초 벼 재해보험 가입 기한은 9일이었으나 가뭄으로 모내기가 늦어짐에 따라 가입기간 내 가입하지 못한 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전라남도가 정부에 가입 기한 연장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 전라남도는 올해 벼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도비 등 560억원을 확보해 농가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실제 벼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ha(3천평)당 순보험료는 약 45만원으로 이 가운데 20%인 9만원만 가입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 벼 재해보험은 가뭄·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여기에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해충 피해를 특약으로 보장해준다.
- 지금까지 전남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 규모는 4만 1천 농가 6만여ha다.
-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앞으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소득 안정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꼭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주간

전남농업정보

139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